

무안공항 면세점 매출 급증

항공편 증편에 이용객 늘어 올들어 14억 육박

무안국제공항내 면세점이 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라 기지개를 켜고 있다.

10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무안 공항내 면세점 매출액이 10월말 현재 13억4000만원으로 지난 한해 매출액 12억90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개점 이듬해인 지난 2010년 6억 5000만원에서 지난해는 12억9000만원으로 배 가량 늘었다.

공항면세점 측은 비행 증편에 맞춰 판매상품 다양화, 서비스교육 강화 등 빠른 대응을 해왔다.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유명 화장품 등 브랜드 입점 또한 증가했다.

현재 무안공항 면세점내에는 정관장을 비롯해 화장품, 양주류, 담배 등 총 980여점이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전남도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전시장도 갖춰져 전남의 청정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매에도 주력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최근 국내의 항공편 증



무안국제공항내 면세점 전경.

편 등으로 이용객이 9월말 11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44%가량 늘었다.

전남도는 항공편 증편을 위한 항공사 재정지원, 관광업계 인센티브 제공, 주차장 이용료와 항공사 착륙료 감면 혜택 등 다양한 공항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은 “신규 브랜드 입점 확대, 다양한 상품 확

보 등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들의 쇼핑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면세점은 2007년 개항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해오다 2009년부터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시한 서비스평가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완도군-목포대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협약

완도군은 10일 “목포대와 국제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및 해조류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에 따라 목포대는 해조류 자원 사업단, 식품공학, 해양수산 분야에서 해조류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해조류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도 나설 계획이다. 군은 도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목포대 의과대학, 대학병원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군은 현재까지 전국 41개 기관 단체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전북

지방선거 앞두고 탄소산업 치적 ‘홍보전’

전북도 “日서 3000억 유치·전주시 “인도 시장개척”

미래 핵심분야인 탄소산업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탄소산업 분야가 3선 출마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김완주 지사와 일찌감치 도박 도전을 선언한 송하진 전주시장 간의 치적 홍보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양측의 홍보전은 지난달 전북도의 일본 도레이사 새만금 유치 성공발표에, 전주시가 인도에서의 탄소부품 시장 성과를 발표하며 반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달 세계 첨단소재 기

업인 일본의 도레이사의 3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건을 성사시켰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도레이가 새만금에 PPS 수지와 컴파운드, 원료인 황화수소나트륨 등 일괄생산 공장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

물론 이번 투자가 고분자 소재인 PPS 분야에 한정됐지만 도레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굴지의 탄소분야 1위 업체로 추후 탄소공장 추가 설립을 배제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뒤질세라 전주시도 탄소핵심

기업 유치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하진 시장이 이끈 인도시장 개척단이 이달 초 13억 인도의 자동차 부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개척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한 것.

탄소도시로 발돋움하는 전주시는 이번 방문에서 각각 인구 1억2000만 명에 달하는 ‘하리아나주(州)’와 ‘마하슈트라주’ 등 2개 주와 자동차 탄소부품 공급 및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인도 주정부와 탄소산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국내 기초 단체로서는 처음있는 대단한 성

과”라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보였다.

이처럼 전북도와 전주시의 ‘탄소경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내년 도지사 선거와 무관치 않다.

탄소경쟁 이면에는 김 지사와 한참 후배격인 송시장과의 결리러운 관계가 깔렸다고 볼수 있다.

내년 선거에 내세울 치적으로 송시장은 일찍 ‘탄소산업’을 선택했고, 3선 출마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한 김지사도 세계 1위 탄소업체인 ‘도레이’의 유치를 민선 5기 후반기 최대 업적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묘한 신경전은 지난달 도의 도레이 유치발표 때부터 불협화음을 야기하는 등 양측의 불편한 관계

로 번지고 있다.

전북도의 도레이 유치 성공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주시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발단은 전북도에서 유치한 도레이가 결국에는 탄소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국내 탄소기업 유치성과에 채를 뿌릴 것이라는 것이 전주시와 시의회의 주장이었다.

탄소분야 거대 공룡기업인 도레이가 경쟁력있는 탄소 관련제품을 출시하면 이제 막 착근한 국내 탄소업체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분석에세다.

물론 전북도는 즉시 “도레이의 투자자 탄소산업 분야가 아닌 만큼 전주시의 주장은 억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지만, 탄소산업에서 비롯된 양 자치단체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마리와 라벤다 등 허브 차 만들기 체험을 하고있다.

지난 8~9일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이 트랙터를 타고 허브농원을 둘러본 뒤 로즈

<남원시 제공>

베트남 참전용사-이주여성 결연

목포시는 지난 7일 목포 예술웨딩컨벤션에서 베트남 참전용사와 베트남 이주여성간 양부양녀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결연식에서 각각 17명의 참전용사와 이주여성들은 부녀의 인연을 맺고 정기적인 교류를 하기로 다짐했다.

목포 하당 지역 주민들

날벼락 급수 중단 불편

목포시 신흥,옥암동 등 하당 2단계 지역 주민들이 8일 오전 급수가 중단돼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사고는 신흥동 목포교육청 인근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공사를 위해 이 일대의 급수를 중단하면서 일어난다. 특히 평화광장 일대는 식당과 상가 밀집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

오전 장사를 하는 음식점을 비롯해 점심 장사를 준비해야하는 식당 등은 갑자기 물이 안 나와 오는 손님을 받지 못해 시정 수도과에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날 급수 중단에 앞서 오전 8시30분부터 11시까지 단수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가 세 차례 발송됐지

만, 목포시청이라는 발신지 표시가 전혀 없어 일부 주민들은 장난 문자인 줄만 알고 미리 대비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안내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교육청 인근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1시간30분가량 단수됐다”면서 “가두 홍보와 발신지 표시를 못한 것은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함평 ‘국향대전’ 이달말까지 유료 개방

함평군은 10일 “일정이 마무리되는 ‘2013 대한민국 국향대전(국화축제)’ 장소를 이달 말까지 유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축제 기간 인기가 높았던 중앙광장 국화작품과 분재작품들을 함평엑스포공원에 그대로 전시할 예정이다. 슈퍼화보 전시관,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등도 운영한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신안 공설운동장 첫삽

군민 등 400명 참석

지난 7일 박우람 신안군수, 양영모 신안군의회 의장, 군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공설운동장 기공식이 열렸다. 군은 그동안 제대로 된 운동장 하나 없어 군민체육대회 또는 축구대회, 각종 행사를 개최하

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신안군 압해읍 신흥로 47-2번지 일원 8만 5252㎡에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입, 인조잔디경기장과 8레인 트랙, 본부석 880석, 토성스탠드 4120석 등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설운동장은 오는 2015년 6월 준공된다.

/신안=이성민기자 sslee@

단 신

고창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고창군과 역사문제연구소는 지난 8일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에서 ‘제9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와 평등의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계승하고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소현수 한양대 연구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발제 주제는 동학교도 및 민중의 동향과 정부의 대응, 중앙정치체력의 동향이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순창 고령 영세농가 256곳 1억여원 영농비 지원

순창군이 관내 소규모 고령 영세농가 256곳에 1억333만원의 영농경영비를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농업인이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000㎡ 이상 5000㎡이하의 벼를 경작할 때 배배면적에 따라 ㎡당 150

원 기준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정부에서 고시하는 쌀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목표금액보다 농외소득(겸업소득, 연금, 노령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급여 등)이 많은 농가는 제외시켰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1년만에 완공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내에 4개 대학이 공동 사용하는 멀티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으로 꾸며진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지구’가 착공 1년여 만에 완공됐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는 지난 7일 오후 군산시 산단남북로 국가산단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

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열었다.

4개 대학 7개학과 학생 670여명은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에서 산업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배우며 경쟁력 있는 산업일꾼으로 양성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민도에대학총동문회 ‘흙·불 기획 초대전’

남원시민도에대학총동문회가 주최하는 ‘흙·불 기획초대전’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남원의 도예인들이 전통방식의 가마로 도자기를 구워 만들어낸 작품 70여점이 선보인다.

시민 도예대학은 남원시가 도예인

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1999년 개강, 현재 14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남원은 420여 년 전 정유재란 때 많은 지역 출신 도공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가고시마 쓰시마 도자기의 원조가 되는 고장으로 유명하다.

/남원=백선기자 bs8787@